

# “故최희석 경비원 1주기’ 달라졌나”

### 입주민 ‘갑질’로 극단적 선택...여전히 현실 열악 업무 범위 뚜렷하지 않고 고용형태도 불안정해 전문가 “경비원 관한 사람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경비원분들  
에게 늘 조심하려고 노력하죠.”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앞  
에서 만난 입주민 A씨의 말이다. 지난  
해 5월10일 이곳에서 일하던 경비원  
최희석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파트 단지 내 이종주차 문  
제로 입주민 심모씨와 갈등을 빚은 뒤  
심씨로부터 폭행 등 ‘갑질’을 당해 괴  
로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최씨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최씨를 경비실 화  
장실에서 감금·구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파트 주민들은 갑질의 시발  
점이었던 이종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렸다.  
경비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새로 마련해 근무자들은 일을 다 마친  
뒤엔 이곳에서 쉴 수 있다.

A씨는 “입주민들이 얽힌 데 화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자 열악했던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첫 움직임”이라고 말  
했다.

이처럼 해당 아파트에선 고인을 기  
리며 경비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모든 경비  
원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니다.

입주민 폭행·폭언으로 최씨가 스스  
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경비노동자들을 향한 일부 입주민의  
갑질이 여전히 목소리가 나온다.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법·제도가 나왔지만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동주택관  
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비원의 실질  
적인 고용 권한을 갖고 있는 입주자대  
표회의가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등을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동시에 경비업에 대  
한 특례를 규정해 경비 노동자들이 경  
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  
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이 오는 10월21일부터 시  
행되는 만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원의 업무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  
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경비원들이 입주민 갑질에 적극적  
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추산에 따르면  
전국 경비원 90% 이상이 파견·용역·  
도급 등 위탁관리 형태로 간접 고용돼  
있다. 단기계약·간접고용 등으로 고  
용불안에 시달리는 경비 노동자들이  
입주민들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항의  
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일하는 경비원  
B(68)씨도 일터에서의 갑질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아파트 규칙에 따라 방문증 없이 아파  
트 내에 주차를 해 둔 차량에 ‘주차금  
지’ 스티커를 붙였다.



지난해 5월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숨진 경비원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난해 4월21일과 같은달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씨는 5월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입주민  
이 B씨를 찾아와 ‘내 자식이 날 보러  
방문한 건데 이런 딱지를 때냐며 고  
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스티커  
를 깔금하게 때려며 걸레를 내던지기도  
했다. B씨는 “화가 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어  
혼자 삭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 넘는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입주민의 폭언과 폭  
행을 유발할 수 있는 모호한 경비 서  
비스 업무의 범위가 뚜렷하게 정해져  
야 한다고 말한다.

직장갑질119의 최혜인 노무사는  
“원래 경비원은 경비업을 적용받아  
관련 업무만 수행해야 했는데 이는 현  
실에 맞지 않아 경비원이 주민들의 편  
의 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  
택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라며, “그  
러다보니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자신  
들의 편의를 위한 업무나 서비스를 무

리하게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원의 불명확한 업무범위  
가 갑질, 괴롭힘으로 이어지기도 하  
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비가 돼  
고 범위가 뚜렷해져야 업무를 둘러싼  
괴롭힘도 찾아낼 가능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경비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  
는 한 명의 근로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도 전했다.

최 노무사는 “경비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도 문제이지만 이는 민간에  
말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대신 경비원이  
집사라는 인식은 버리고 똑같은 근로  
자로서 정당한 휴게시간, 근무시간 등  
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이 생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광주 남부소방,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소방안전컨설팅

광주 남부소방서는 불철 소방안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 관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7개소로 소방시설 보급 및 화재 안전컨  
설팅을 통한 질적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소의 될 수 있는 장애인(피난약자)에  
게 관심과 온정의 나눔을 위해 추진됐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소방안전점검 등 사전 위험요소 파악 △화재안전  
키트(소화기, 화재경보기, 투척용소화기, 가스타이머, 피난유도표지)설치  
△소방안전교육 실시 △가상화재 훈련(무각본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최희희기자

## 완도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달 30일 밤부터 풍랑·강풍특보에 따  
른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등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4.30~5.2일까지 3일  
간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태풍이나 기상악화 등 특정한 시기에 연안해  
역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 그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관심-주의보-경보’ 총 3단계로 운용된다.

완도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험구역 30개  
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파출소 전  
광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  
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주말 기상악화에 따라 연안해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사  
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당부하였다.

완도=이민혁기자

## 여수소방, 의용소방대 연합회 화재예방 순찰 활동 전개

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여수시 산불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봄철을 맞아  
취약시간대 자체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매년 4월과 5월은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로 행정에서도 산  
불방지 대응태세를 강화해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봄비 등으로 산불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떨어질 우려가 있  
어 의용소방대에서 예방활동에 나섰다.

섬지역을 비롯한 원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의용소방대 447명이  
2인 1조로 편성하여 영취산, 망마경기장, 낭도, 대경도 등 관광객 및 등산객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성 홍보, 산림 인근 지역 쓰레기 소각 금지 홍보 등을 통해  
선제적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이오남 여수시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으로 산림·들불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산림 인접지역 내 쓰레  
기 및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여수=오상호기자

## 여수 60~70대 요양보호사 추가 확진...역학 조사 ‘진땀’

### 코호트격리 병원 관련 요양보호사 연쇄 감염

### 유형시설 발 감염도 끊이지 않아 긴장감 고조

지난 2일부터 유형시설 발(發) 코  
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전남 여수에서 60대 요양보호사와 접  
촉한 60~70대 요양보호사 2명이 잇따  
라 확진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일 여수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  
날부터 이틀새 요양보호사 2명 등 4명  
이 추가 확진돼 여수 126~129번(전남

1161~1164번) 환자로 분류됐다.

지난 8일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를  
통해 여수시 봉산동의 한 요양병  
원 60대 요양보호사(여수 114·전남  
1147번)가 감염된 이후 하루만에 2명  
이 추가됐다.

고령의 요양 보호사인 여수  
126~127번(전남 1161~1162번)은 지

난 7일 실시된 1차 전체 검사에서 음  
성 판정을 받았으나 8일 1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요양병원 2차 전  
체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특별한 증상이 없던 이  
들이 여수 114번(전남 1147번)과 접  
촉한 것으로 보고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10명의 고령 입원자가 감염된  
요양병원은 이미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됐지만, 추가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요양병원 외에도 이날 오전 50대  
주부가 확진돼 여수 128번(전남 1163  
번) 환자로 분류됐다. 감염 경로는 유  
형시설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지  
난 3일 1차 음성 판정 후 자가격리 과  
정에서 확진된 20대 가족(여수 125)  
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수 129번(전남 1164번)은 30대  
유형시설 종사자로, 지난 3일 1차 음  
성 판정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무증  
상이었으나 2차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수=오상호기자

## 순천경찰, 전화금융사기에 예방한 금융기관직원, 감사장 전달

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지난달 29일 10:30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  
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다액의 돈을 인출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남도  
파출소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전남낙농농협 직원 김모(44세)씨  
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지난달 20일 12:40경 신고자는 남정동 소재 전남낙농농협 본점에서 인테  
린이비용으로 다액(2,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안하는 이유 등을 상세히 물으며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순천=김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